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55호 [무게 제25664호] 주제 106 (2017)년 6월 4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설

## 보천보의 해불은 주체조선의 백승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온갖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을 단호히 거부하며 최후 승리를 향하여 노도와 같이 전진해나가고 있다.

백두산대국의 강대성과 무적막강한 국력이 있었으며 세계피압박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이끄는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보천보전투에서 80년대를 맞이한것은 참으로 의의깊은 일이다.

지금은으로부터 80년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휘하신 보천보전투는 당국사의 호를을 조국해방으로 불려서 두고 항일투쟁의 전황적극권을 열어놓은 역사적사건이었다. 보천보전투는 항일혁명전쟁에서 가장 빛나는 페이지를 아로개 하였으며 세계피압박민들의 민족해방투쟁도 크게 고무추동하였다. 보천보전투를 통하여 민족의 전설적영웅이시며 집세의 애국자인 김일성동지의 천출위상이 온 겨레와 전민족의 심장속에 더욱 깊이 새겨졌으며 일제의 식민지통치체계에 심각한 정치군사적파괴가 가져지게 되었다. 이때로부터 보천보의 해불은 조선혁명의 백승의 력사로 기록되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지휘하신 보천보전투는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역사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집니다.》** 1930년대 후반에 일제의 야만적인 폭압에 우리 인민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은 형언할수 없었다. 민족수난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조직하시고 결연히 국내에로 진출하시며 보천보전투를 조직지휘하시였다. 보천보에 올린 총소리는 칠칠암에서 무장대 드려온 조국해방의 서방을 인계주었다는데 보천보전투가 승리하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보천보전투는 승리의 노래로 이끄시어 자기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침략자들은 끝까지 맞서 싸우는 조선혁명가들의 불굴의 정신과 영웅적기개를 높이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은 후손만대에

영원불멸할것이다. 보천보전투가 있는 때로부터 8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 지난 80년은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 밑에 가장 포악한 제국주의강제력을 대승한 영웅의 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솟아오르고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자랑찬 승리와 세계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이룩된 영광스러운 년대기이다. 이 장구한 로정에서 보천보의 해불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베풀어 온 기둥, 민족자존의 정신력이 새겨진 살아있는 민족의 령도자였다. 보천보의 해불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베풀어 온 기둥, 민족자존의 정신력이 새겨진 살아있는 민족의 령도자였다. 보천보의 해불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베풀어 온 기둥, 민족자존의 정신력이 새겨진 살아있는 민족의 령도자였다.

오늘 우리 혁명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오늘날의 총진군은 조선혁명의 영원한 피줄기인 백두의 혁명전통을 전경히 옹호하고 수호하고 빛나게 계승하여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성스러운 전진이다. 지금 백두의 모진 광풍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불패의 강국의 위용을 계속 높이 펼쳐서 인민의 최고리상선전의 승고한 경지를 펼쳐나가는 영웅조선의 힘찬 전진에 걸맞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삶이 모든 명역과 생존권마저 빼앗기 위해 사상최대의 정치군사적위협과 야만적인 초강경제에 더욱 광분하고있다. 자주나 예속이나, 사회주의나 제국주의나 하는 사생결단의 투쟁을 용감하게 우리 혁명에서 오늘처럼 이기고 준엄한 때는 일찌기 없었다.

중립되는 최악의 역경을 박차고 우리의 힘, 우리 식으로 이 땅에서 천하제일강국을 건설해나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백두의 혁명전통은 더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이다. 보천보에 야마온 해불은 지나간 역사야 아닌 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상징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쿠약무도한 민족말살책동속에서도 굴절없이 사회주의승리를 향하여 총소리를 높이 올리는 우리 조국의 정의적인 현실은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적기상이 나타내고있는데 대한 명백한 증명이다. 우리는 보천보의 해불로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보여준 그대로를 만리마대전군의 불길은 세차게 지쳐올려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결승의 기상을 높이 펼쳐나가기 위하여.

보천보의 해불은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민족자존의 정신, 백결불굴의 공격정신이 베풀어 주는 고귀한 보물이다. 사상과 신념이 굳건한 나라, 정신력이 강한 민족은 그 어떤 강제도 정복할수 없다. 조선이 살아있다는것은 온 민족자존정신과 전사의 만세무생의지가 살아있다는것이요, 우리 인민은 그 어떤 침략자도 절대로 굴복시킬수 없으며 자기 힘으로 민족의 자주적법권을 이룩해나갈것이라는 억척불굴의 신념을 과시한 바로 여기에 보천보의 해불은 영원한 생명력이 있다. 순탄한 날에나 준엄한 날에나 보천보의 해불을 안고 살면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혁명적의지,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높이 발휘하게 되어 길해고도에서도 사치판에서도 사상과 정신력의 강자로 존엄받게 된다. 오늘 우리 혁명투쟁의 조건과 환경은 많이 달라졌다. 세기가 교체되고 새 세대가 혁명의 주역이 되고있지만 이 땅의 주인들은 오늘날도 항일전열들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살아 투쟁하고있다.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자제의 힘으로 맞받아싸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 백년 쓰러지면 백년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 억척만만 죽어라도 천수를 치는 백결불굴의 기개와 죽어도 버리지 않는 혁명신념을 뼈와 살에 조이박고 사회주의조국의 존엄수호전선 영웅조선의 본래를 펼쳐가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보천보의 불길은 온갖 부정의와 제국주의의 아성을 불사르는 사상과 신념의 불길이다. 오늘 세계가 무너져가고 원수들을 전멸시키는 조선의 거대한 힘은 위대한 사상과 정신력에 있다. 고난과 시련이 앞을 막아내고 천만대군이 밀려들어오도 굴절할 줄 모르는 혁명 신념과 의지를 안겨주는 보천보의 해불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서 혁명의 불길로 타오르기에 조선은 앞으로도 승리의 역사만을 아로새길것이다.

보천보의 해불은 천만군민이 선군혁명의 한걸음씩 나아가게 하는 전투적기치이다. 무적의 총대우에 진정한 평화와 번영, 사회주의의 승고한 리상을 실현해나가는것이 오늘 우리 조국의 항오이다.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나가는 우리의 힘찬 전진군을 그 어떤 비열한 반혁명세력도, 전쟁의 난파도와 황홀한 대재앙도 뒤흔들수 없으며 지역시장의 정신을 혁명의 고귀한 세부로 불려받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그 어떤 불가능도, 사소한 침체와 담보도 있을수 없다.

백두의 혁명전통을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일성조선의 만대무궁화위대한 위대한 투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승발전시켜오신 백두의 혁명전통을 생명선으로 붙여주고 조선혁명을 빛나게 완수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철칙같은 의의이다. 백두밀림에서 높이 솟아오른 자주, 선군,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조선이 세계를 당당히 앞서나가기도록 혁명하게 이끄시는 원수님의 특출한 령도력은 세인을 경탄시키고있다.

메는불의 언덕을 넘어 새로운 주제 100년대전진군에 들어선 우리 혁명의 전진군을 가로막는 절대미증의 도전과 시련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백두의 공격정신, 공격적투쟁을 총추도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 백두산대국의 승리는 화성적이다.

보천보의 해불은 일심단결과 지역시장의 위력으로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보란듯이 건설해나가기 위한 비약의 원동력이다. 력사가 보여주는것처럼 민족은 단결하면 살고 분열되면 망하기마련이며 지역시장간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고수하고 풍성번영을 이룩해나가는 참다운 길이다. 일심단결과 지역시장은 《도, 》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조선혁명가들의 위대한 단결의 정신, 민족자주의 정신은 보천보전투를 계기로 더욱 높이 발휘되었다. 혁명의 사명감과 운명공동체, 일심동체를 이룬 인민, 자기 힘으로 밀고 나가는 천만대군을 맞받아싸고 온 불굴의 인민이 있었기에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할수 있었다.

일심단결의 정신, 항일의 연결축단정신은 우리 조국이 제대미를 털고 수세기를 몰아내어 공업화의 대문을 열어주게 하였으며 천리마의 기상, 속도전의 불바람으로 동방당시의 번영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전진기를 열리게 하였다. 만리마시대인 오늘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기적과 승리를 안아오며 최전선에서 활약하고있는 실마리들을 힘도 다들여 천만군민의 일심단결과 위대한 자강력이다.

천만군민이 령도자와 운명의 피를 공유하고 뜻과 정을 같이해나가기로 단결과 시련이 결집일수록, 적들의 만공회국력들이 강회되면 필수록 자강력을 더욱 증대시키며 단결의 승고한 리상을 실현해나가는것이 오늘 우리 조국의 항오이다.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나가는 우리의 힘찬 전진군을 그 어떤 비열한 반혁명세력도, 전쟁의 난파도와 황홀한 대재앙도 뒤흔들수 없으며 지역시장의 정신을 혁명의 고귀한 세부로 불려받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그 어떤 불가능도, 사소한 침체와 담보도 있을수 없다.

백두의 혁명전통을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일성조선의 만대무궁화위대한 위대한 투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승발전시켜오신 백두의 혁명전통을 생명선으로 붙여주고 조선혁명을 빛나게 완수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철칙같은 의의이다. 백두밀림에서 높이 솟아오른 자주, 선군,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조선이 세계를 당당히 앞서나가기도록 혁명하게 이끄시는 원수님의 특출한 령도력은 세인을 경탄시키고있다. 메는불의 언덕을 넘어 새로운 주제 100년대전진군에 들어선 우리 혁명의 전진군을 가로막는 절대미증의 도전과 시련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백두의 공격정신, 공격적투쟁을 총추도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 백두산대국의 승리는 화성적이다.

맛을 알아야 한다고 하시며 온 나라에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여행을 일으켜 주시어 천만군민이 언제나 백두산을 안고 살아 투쟁하도록 하신분도 우리 원수님입니다. 백두의 혁명전통을 뜻깊이 이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초강대강군에서 민족사적인 투쟁사변들과 대승리, 대번영을 노수놓아지는 오늘날의 만리마시대가 되어 남수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오늘날도 패업도 영원히 백두의 혁명전통으로 승리할것이며 이 땅에서 세계가 무너져가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울것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가 열린 위대한 실재도다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며 주체 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기 위한 항오를 임부가 나서고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보천보의 해불을 언제나 피를 상징하는 사회주의조선의 기상과 본래를 남김없이 펼쳐나 가야 한다.

우리의 사상과 위업, 력사와 전통, 우리의 힘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 결승의 신념을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열어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두에서 이끄시는 주체의 길은 조선이 나아갈 불멸의 길입니다. 우리의 위업은 정당하며 최후의 승리는 위대한 사상과 전통, 강위력한 힘을 지닌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주제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을 개척하고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정신과 혁명업적을 한시도 잊지 말고 대를 이어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항일투쟁을 이끈 김일성동지의 방편력이 되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적으로 전경히 옹호보위하여야 한다. 어떤 역경속에서도 결승의 신념드높이 당을 따라 세계적 전진하며 보천보의 해불이 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불길로 타오르며 이어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의 최전선기를 펼쳐 천만군민을 당과 수령에 무한히 충실한 결성한 혁명가,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여세에 준비시켜야 한다. 우리는 전체 군대와 인민을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훈련시켜 주체적정신을 계승발전시켜주시어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조선의 기상을 남김없이 펼쳐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의 최전선기를 펼쳐 천만군민을 당과 수령에 무한히 충실한 결성한 혁명가,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여세에 준비시켜야 한다. 우리는 전체 군대와 인민을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훈련시켜 주체적정신을 계승발전시켜주시어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조선의 기상을 남김없이 펼쳐야 한다.

이어야 한다. 선군의 길, 병정의 길에 민족민단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이 있다.

우리가 만리마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고 조국과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확고히 담보하리란 최후의 승리를 총추도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기 위하여. 인민군대는 전군에 당의 유일적정권체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고 오층을 7년대 정치정리운동과 군위부대운동을 심화시켜 수령검상운위군, 불패의 당군으로서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추어 정치사상강화, 도덕강화를 계속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전체 군중, 병중, 전문병부대에서 백두산 훈련열풍, 강도높은 싸움준비열풍을 일으켜 모든 군인들, 대비약을 일으키며 주체 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기 위한 항오를 임부가 나서고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보천보의 해불을 언제나 피를 상징하는 사회주의조선의 기상과 본래를 남김없이 펼쳐나 가야 한다. 우리의 사상과 위업, 력사와 전통, 우리의 힘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 결승의 신념을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열어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두에서 이끄시는 주체의 길은 조선이 나아갈 불멸의 길입니다. 우리의 위업은 정당하며 최후의 승리는 위대한 사상과 전통, 강위력한 힘을 지닌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주제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을 개척하고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정신과 혁명업적을 한시도 잊지 말고 대를 이어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항일투쟁을 이끈 김일성동지의 방편력이 되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적으로 전경히 옹호보위하여야 한다. 어떤 역경속에서도 결승의 신념드높이 당을 따라 세계적 전진하며 보천보의 해불이 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불길로 타오르며 이어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의 최전선기를 펼쳐 천만군민을 당과 수령에 무한히 충실한 결성한 혁명가,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여세에 준비시켜야 한다. 우리는 전체 군대와 인민을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훈련시켜 주체적정신을 계승발전시켜주시어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조선의 기상을 남김없이 펼쳐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의 최전선기를 펼쳐 천만군민을 당과 수령에 무한히 충실한 결성한 혁명가,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여세에 준비시켜야 한다. 우리는 전체 군대와 인민을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훈련시켜 주체적정신을 계승발전시켜주시어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조선의 기상을 남김없이 펼쳐야 한다.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구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구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구바공화국 내각 수상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아 바 나  
구 바 공 산 당 중 앙 위 원 회 제 1 비 서  
구 바 공 화 국 국 가 리 사 회 위 원 장  
구 바 공 화 국 내 각 수 상  
**라 울 까 스프 로 루 쓰 동 지**  
나는 생일을 맞은 당신에게 따뜻한 축하와 동지적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당신이 앞으로도 건강하여 구비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衷心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 정 은**  
주제106(2017)년 6월 3일 평양

## 조선은 세계평화를 굳건히 담보하는 성새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여 이팔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 및 연대성명회, 조선과의 친선협회 이팔리아지가 5월 25일 공동성명문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남로 약탈책에는 미국, 대조선적대시정권에 따르며 맞서 싸우고있는 조선인민의 두

##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 참가자들이 3일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아이들은 나라의 왕으로, 보배로 내세워주시며 주실수 있는 모든 영광과 행복을 다 인계주시



【조선중앙통신】

# 정론

# 후 대 들 을

# 위 하 여

내 조국의 6월은 아이들의 계절, 저 하늘의 억만가닥 햇살도 꽃보라로 뿌려지고 아이들의 웃음꽃이 강산을 가득 채운다. 이제 온 나라의 축복속에 성대히 열리게 될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는 그 얼마나 아름다운 미래의 주인공들의 모습을 력사의 여지에 이로세게 펼칠 것인가.

몇해전 새해 첫날 아이들의 밝은 웃음속에 감격치며 받았던 피로가 다 풀렸다고, 우리가 아는 힘들게 하겠지만 저렇게 밝게 웃는 아이들을 보게 되니 얼마나 좋은가, 우리가 이를 악물고 혁명을 하는 것은 바로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이므로 뜨겁게 맞잡아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 사랑 있고 또다시 밝아오는 6월이다. 해마다 찾아오는 기쁨의 달이건만 이해의 환희는 아니다.

복속보다 귀중한 우리의 사회주의와 이 땅의 밝은 미래를 짓밟으려고 미쳐달린듯한 간악한 원수들을 제해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승리자의 자부와 활기가 강산을 점감하고 있다.

우리의 사상과 신념, 권위와 미례를 굳건히 수호할 위대한 《주체관》, 새로운 투쟁적 계급발전의 투쟁적 통찰력으로 밀려드는 불구름을 저지할 채찍과 영리한 승리의 화환의 하얀을 펼쳐놓은 민족사적대승사에 맞이하는 아이들의 6월명절이다.

우리 어린이들 얼마나 기쁘게 크리시, 이 나라 어머니들의 눈가에 또 뜨거워지고 고여오른다.

전설과 시편을 불리던 땅에 꽃피던 피어나는 우리 아이들의 웃음!

누가 승리자와도 배반자가, 누가 인간이며 누가 이수인가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있다.

우리 노래하노라, 명명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선물로, 복받은 이 대지를 오선지향의 사회주의조선의 위대한 찬란한 미래를, 장래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아이들의 밝고 명랑한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해나아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음입니다.》

아이들이 웃는다! 그것은 창으로 힘이 솟는다, 하나의 위대한 세계가 보이는 법이다. 그 나라의 강대함과 무궁한 앞날을 가능하게 하는 아이들의 웃음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따뜻한 정이 넘치고 언제나 이기는 나라, 미래가 밝고 희망이 무궁한 나라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있다. 언덕의 세부모다, 거대한 평토보다, 력보다 더 값지고 강건한 것은 바로 명랑하고 구슬같은 아이들의 깨끗한 웃음이다.

세계, 사회주의 이 조선의 참모습을 보며, 저행동원전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보라. 이집해된 솟아오르던 달달달달 《소나무》 책이배에 1 2년새꽃대 물고 돌리었다. 민물배학살장 번지는가 수업시간엔 아이들의 시간이라, 우선권을 받으니 달려오는 사랑의 왕자와 더불어 수도 평양과 원산 등 나라의 곳곳에서는 아이들의 풍우유머는 시간이 넘쳐나고 이어진다.

지금도 낱대 평정한 목소리-《사회주의가 꽃 활짝열린다.》

원아들의 굳건히 울려나오는 이 진정의 도로, 육류동맹원의 의사결정자들이 귀엽게 웃는 애원기 가슴속에 찡찡한 대는 정경진경진경의 넓은 그대도 복속에서 복속 누리는 이 나라 어린이들의 행복을 노래한다.

남아준 부모는 결을 떠났어도 우리 원아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어머니가 있는가. 잔재취주는 엄마, 밭벼어주는 엄마, 웃웃다머주는 엄마, 아흔새끼도 보살펴주는 엄마, 여기에 피아노며 가야금을 배워주는 선생님과 있어 그 따뜻한 손길이 이끌어 왔던 것은 손가락을 펴기하는 모습들도 우리 영도복 보았었다.

부모 아이들의 하루는 과연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이 땅에서 제일 맛있는 집밥은 다 아이들의 밥, 만장대과 송도전, 풍천 뽕명주사리들에 눈부시게 솟아오른 아열소들에서도 학생소년들의 웃음소리 그칠 줄 모른다.

자란 세대가 위대한 수령님을 당대 주체혁명의 전성기를 열어나갔고 행한할수 없는 시련이 겹쳐들던 고난의 행군을 영웅적으로 돌파한 승리자로 력사의 언덕에 높이 올라갔다.

오늘 저 만리대공에 《주체관》의 피성을 장쾌하게 울린 우리의 미려운 국방과외전사들속에 과연 누구들이 있는가.

고난의 행군의 날에 성장한 세대들이다. 고집속에 철이 들며 원수에 대한 증오를 피와 살로 새긴 그들이 가증스러운 미제에게 최후의 명령을 선언하였다. 그명령 미명도 우리의 세 세대가 2개의 철도철을 띠고 불태우려 제육장군으로 내달리는 주체조선의 위용을 온 누리에 떨치고 백두산뜨락에서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여 청년장군의 기상을 만방에 시위하였다.

이 땅에서 지리란 후대들은 이렇게 강하고 훌륭하다.

미제가 우리 혁명의 3세, 4세를 넘보며 그 무슨 《연화》를 울려나온다 세계가 보라, 조선의 후대들은 혁명의 불꽃기를 높이 날리며 사회주의 승리의 한걸음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지 않는다.

조선혁명의 전 포경지에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란 후대들이 위대한 장군님시대의 주체군이 되고 장군님 키워주시 후대들이 오늘날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혁명의 전진을 추동해나가는 금지없는 력사라는 생각에 가슴속으로 감동할수 있다.

후대이자 미래의 인민이고 미래의 조국이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당들도 있지만 시대와 단계를 이어가며 이렇듯 후대들을 훌륭하게 육성함으로써 위대한 인민의 력사를 활기차게 써온 당과 국가가 없다.

올리는 력사의 오늘의 세대에 대한 자부도 크다. 그런 위대한 세할, 훌륭한 대대가 우리뒤로 또 또 오면, 그렇게 무한대로 이어 지시니 미래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라야말로 진짜강국이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는 《애국가》와 같은 노래가 없다.

《세상에 부럼없어라》

하늘은 푸르고 대 마름 즐겁다 손뼉금소리 울려라... 마시도 그 노래 모르면 조선의 꽃봉우리 가년듯, 이는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의 주제인 동시에 귀중한 어머니에 대한 송가이다.

아버지!

심마를 정향명이라도 아이들에게 풀어보아도 좋고 진성이포에 원아들에게 풀어보아도 좋다.

너희들의 아버지라 누구인가, 그러면 약속이나 한듯이 되지는 데다-우리의 아버지인 정향하는 김정일원수님이시구나!

위대한 수령이 훌륭한 후대를 키운다.

우리 조국에정향한 한 나라 수령이 온 나라 어린이들의 아버지, 자식부자가 되어서 그 들모든 강국건설의 믿음직한 강군들로서 키워가는 강동같은 화북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아이들은 나라의 왕, 수령은 그 아이들의 아버지!

물어보면 이 땅에서 위대한 아버지사랑의 세계, 후대사랑의 세 력사를 펼치신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시었다.

조선혁명의 첫 기수에 서있던 진명학교가 떠오른다. 그것이 우리 혁명의 전로를 밝힌 역사적인 커튼살의 정조산이었다.

동지 사립학원사랑이 친모보다 귀중했던 그때 바로 그 학교의 교원으로 혁명조직성원들을 파견하여주시었다 진명학교는 그 때로 우리 수령님께서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시며 미래를 조종해 가꾸어주시는 후대사랑의 요람과 같았다.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입시적후퇴시기에 있었던 어린애들을 《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잊을수 없다.

혹적이 잃어버린 3살 난 단 함양의 어린이들을 위해 지구에 파견되었던 위대한 수령님의 호위성원들.

그 어린이들 아버지마저도 수령님걸을 떠날수 없다고 하였을 때 우리 수령님 절절히 하신 교시,

우리가 지금 피를리며 싸우는것은 미래

를 위하고 그들을 위해서가 아닌가. 정명 친부모의 사랑이 가닿지 못하는 곳에 더 먼저 가닿는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수령님의 사랑이었고 우리 수령님께서 자신보다 더 귀중한 여기진 존재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다.

지금도 귀 기울이면 들려올것만 같다. 어느 한 회의장에서 뜨겁게 울린 우리 수령님의 울음.

고아가 되어 애육원과 초등학교에서 자란 사람들의 심봉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들이 자라난 환경과 또래는 방화국의 사회주의제도이며 그들을 키워온 아버지와 어머니는 조선로동당이다.

환경과 또래는 사회주의제도, 키워온 아버지와 어머니는 조선로동당!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똑같이 울었다.

지금도 온 나라 가정들에서 그리움속에 부르는 노래 《나랑과 아이들》, 정명 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미래를 없애려고 피를 흘려 남기고 그대 우리 장군님 어이하러 떠났고 이 길을 가고자하는 노래를 무르시며 선군길을 이어가시었다.

친안사실들의 운명을 지키시려는 위대한 아버지의 마음에서였다.

귀전에 들려올것만 같다.

이들의 첫말이후를 그려보시며 전진길로 향하시던 그날의 아열소울라의 발동소리가, 그리고 떠오른다. 문과기들에게 안겨주시던 만년필에 쓴 뜻 담이 새겨진 《미려한 사랑하리》의 글방이며 정경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특정다수 대승단의 흥안이 가여웠게 자라 오를은 끝없는 너벙사가 된 모습.

세월은 총리 혁명의 대는 벌레 4세, 5세를 기록하고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안겨사는 아버지의 품은 바뀌지 않았으니 우리 원수님께서 대를 이어 이 땅에서 세가시는 후대사랑의 시시하는 그 얼마나 뜨거웠었인가.

우리 후대들이 더불어 이어 누리는 아버지목! 인류목사가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행운의 의미는 참으로 깊다.

그것은 이 땅의 후대들이 태고 이어 올림에 대한 가장 큰 믿음은 안고 역대로 씩씩하게 성장한다는것이며 품어주고 보살펴 주는 따스로운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민이 심장으로 타치는 《귀여운 아이들》이 겪을 줄이 아버지라게서 전진한다는 노래의 구절처럼 이 세상 제일 강하고 자애로우신 위대한 아버지를 모시어 이 땅의 미래는 끄떡없다는 드림같은 확신이며 자부이다.

사말들은 말한다.

우리 원수님은 정말 아이들을 괴워하신다고, 어쩌면 아이들과 그렇게도 화를없이 어울리며 피아노의 《전향》까지 받으신지, 어쩌면 최후원전마음의 아기의 첫들까지 잊지 않으셨고 생일선물을 안고 가실까, 빨간말을 제일 좋아하는 동심을 어떻게 다 아시고 좋은 일을 찾아한 중추에게가 팔간별 다섯개를 그려 주시는것이 고장자는 아기의 표반을 찢음 어머니부터 잘 지고라 하고 그러도 다짐하게 속삭이신가, 아이들을 괴워하신것은 우리 원수님의 친정들이고, 어떻게든 이 땅에서 살아남아는 진정의 불순이라고.

그 친정, 그 인간미에 또 하나의 위대한 후대사랑의 세계가 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다.

우리가 지금과 같이 어렵고 난만한 시기에 굳건히 지켜낸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내 후대에 가서 사회주의승리의 함성으로 높이 울려 퍼질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원수의 신념과 확언에 넘쳐 조국의 만년미래를 펼쳐가시는 위인께서만 후대사랑의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셨을 것이다.

나를 이제서서 아이들은 애원한 똑같은 어머니이다. 더 높은 추추초음 미미의 우리 조선-원화적일학원의 모우이고 한결 귀중살았어 리트리는 꽃봉우리들의 웃음소리가 자 부강조국의 하늘기에 울려 퍼질 장엄한 최후승리의 함성이다.

생각할수록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후대사랑의 뜨거운 손길로 오늘의 우리

은 나라 원안인민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의 자우자우를 심장으로 따르며 이 땅에서 우리 아이들의 웃음을 더 활짝 꽃피우기.

후대들을 위하여!

이는 존엄성은 우리 당기의 기록에 새겨진 성스러운 사명이고 이 땅에 조선인민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불고나아가 할 무정의 표대이다.

후대들을 위하여 투쟁하는 여기에 조선혁명의 가치를 있고 우리 조국의 영원불멸성이 있으며 시대의 아름다움이 있다.

후대들을 위하여 더 많은 맘을 흘리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녀야 할 과우이며 겹겹을 심장에 불타야 할 성스러운 자각이다.

우리의 백두산성새가 억척으로 다져질 때 내 조국의 미래가 든든하고 이 땅의 어린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기쁨의 노래소리가 시대의 승리가 되어 더욱 뜨겁게 울려 넘치게 된다.

주체적국방공업부문의 전문원들이여, 내 조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선군혁명의 병기장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자.

전화의 불빛속에서 변소으로 피대를 들며 원수님의 피관을 억척같이 꺾던 불사신들이 자신들이 조여대었던 허허머를 유산으로 남겨주며 무엇을 바랐었나.

산으로 넘어가다 다시금 이 땅을 넘겨다보지 못해, 더러운 군화발을 붙여놓았던 양기의 후손들이 또다시 덤벼들면 세도 없이 자랑스러울수 있도록 백두산성새를 순간도 멈출없이 버리고 또 버리며야 한다는 믿음이 아니었겠나.

그대가 주체적국방공업부문의 전문원이라 어떤 이 땅의 어린이들이 고은 눈망울을 내 조국의 맑고 푸른 하늘을 새기고 무무는 꿈과 리상을 활짝 꽃피우기도록 천부들을 전 붙게 하는 백두산성새를 더 많이, 더 광범 개발생신하라.

자력자강만이 우리가 살길이고 후대가 부흥하는 길이다.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다. 우리 후대들은 내적것을 넘겨다보지 않는 자주적의 강한 존엄성은 배일의 인민이 되게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재부를 더 많이, 더 훌륭히 마련해가자.

오늘이 어렵고 우리가 잠시라도 헛눈을 팔면 나라의 도를 부러뜨린 그것은 손지키지않고 아닌 후대들을 제국주의자들의 노예로 내맡기는 자멸행위나 같다. 자력자강의 창조력으로 후대들에게 세계인 우리들의 것을 한가자라도 더 안겨주기 위해 힘과 기쁨과 열정을 다 마시자.

누구나 과학기술혁명전에 참가하러 뛰어오면 우리에 유를 창조하여야 한다. 유에서 비단같은 울리며 뽀송, 세제적인 운동복자, 잠복자로 명성명천 계승상과 같은 기적적발명의 주인공이 되어 우리의 후대들에게 친화적일학원을 넘겨주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삶의 순간순간에 어떻게 맞이하는가에 따라 조국의 오늘이 빛나고 매일이 결정된다.

이 나라의 찬란한 미래를 피로써 열어놓은 우리 조국부마우의 선원들의 마음까지 합쳐, 보이지 않는 싸움의 길에서 생을 마친 유망무명의 영웅들만이 무고하지 않게 값 높은 삶의 자욱을 새겨주었다.

오늘의 우리 후대후마우 후대들이 되어 갈 길의 디딤돌이 되고 도약대가 되어 자신의 피와 맘이 스민 창조물로 조국의 데 지어 사직원을 쓰자.

내 후대들은 뜨겁게 추어왔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같은 시련이 있을 때라도 우리들의 행복을 배워들이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안고 창조의 진군로 달려나간 사람들이었다...

우주를 나는 위성들과 군사강국의 위용을 과시하는 《주체관》, 수많은 문명의 전축물들과 황금신, 황금질, 황금복을 대 한 거에서 우리 세대의 무정의 끝줄을 읽게 되리라.

다 밝게 웃어라, 내 조국의 어린이들아, 다라리라, 후대들을 위하여!

박 옥 정, 엄 금 명

우리 사상과 신념, 권위와 미례를 굳건히 수호할 위대한 《주체관》, 새로운 투쟁적 계급발전의 투쟁적 통찰력으로 밀려드는 불구름을 저지할 채찍과 영리한 승리의 화환의 하얀을 펼쳐놓은 민족사적대승사에 맞이하는 아이들의 6월명절이다.

우리 어린이들 얼마나 기쁘게 크리시, 이 나라 어머니들의 눈가에 또 뜨거워지고 고여오른다.

전설과 시편을 불리던 땅에 꽃피던 피어나는 우리 아이들의 웃음!

누가 승리자와도 배반자가, 누가 인간이며 누가 이수인가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있다.

우리 노래하노라, 명명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선물로, 복받은 이 대지를 오선지향의 사회주의조선의 위대한 찬란한 미래를, 장래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아이들의 밝고 명랑한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해나아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음입니다.》

아이들이 웃는다! 그것은 창으로 힘이 솟는다, 하나의 위대한 세계가 보이는 법이다. 그 나라의 강대함과 무궁한 앞날을 가능하게 하는 아이들의 웃음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따뜻한 정이 넘치고 언제나 이기는 나라, 미래가 밝고 희망이 무궁한 나라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있다. 언덕의 세부모다, 거대한 평토보다, 력보다 더 값지고 강건한 것은 바로 명랑하고 구슬같은 아이들의 깨끗한 웃음이다.

세계, 사회주의 이 조선의 참모습을 보며, 저행동원전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보라. 이집해된 솟아오르던 달달달달 《소나무》 책이배에 1 2년새꽃대 물고 돌리었다. 민물배학살장 번지는가 수업시간엔 아이들의 시간이라, 우선권을 받으니 달려오는 사랑의 왕자와 더불어 수도 평양과 원산 등 나라의 곳곳에서는 아이들의 풍우유머는 시간이 넘쳐나고 이어진다.

지금도 낱대 평정한 목소리-《사회주의가 꽃 활짝열린다.》

원아들의 굳건히 울려나오는 이 진정의 도로, 육류동맹원의 의사결정자들이 귀엽게 웃는 애원기 가슴속에 찡찡한 대는 정경진경진경의 넓은 그대도 복속에서 복속 누리는 이 나라 어린이들의 행복을 노래한다.

남아준 부모는 결을 떠났어도 우리 원아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어머니가 있는가. 잔재취주는 엄마, 밭벼어주는 엄마, 웃웃다머주는 엄마, 아흔새끼도 보살펴주는 엄마, 여기에 피아노며 가야금을 배워주는 선생님과 있어 그 따뜻한 손길이 이끌어 왔던 것은 손가락을 펴기하는 모습들도 우리 영도복 보았었다.

부모 아이들의 하루는 과연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이 땅에서 제일 맛있는 집밥은 다 아이들의 밥, 만장대과 송도전, 풍천 뽕명주사리들에 눈부시게 솟아오른 아열소들에서도 학생소년들의 웃음소리 그칠 줄 모른다.

자란 세대가 위대한 수령님을 당대 주체혁명의 전성기를 열어나갔고 행한할수 없는 시련이 겹쳐들던 고난의 행군을 영웅적으로 돌파한 승리자로 력사의 언덕에 높이 올라갔다.

오늘 저 만리대공에 《주체관》의 피성을 장쾌하게 울린 우리의 미려운 국방과외전사들속에 과연 누구들이 있는가.

고난의 행군의 날에 성장한 세대들이다. 고집속에 철이 들며 원수에 대한 증오를 피와 살로 새긴 그들이 가증스러운 미제에게 최후의 명령을 선언하였다. 그명령 미명도 우리의 세 세대가 2개의 철도철을 띠고 불태우려 제육장군으로 내달리는 주체조선의 위용을 온 누리에 떨치고 백두산뜨락에서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여 청년장군의 기상을 만방에 시위하였다.

이 땅에서 지리란 후대들은 이렇게 강하고 훌륭하다.

미제가 우리 혁명의 3세, 4세를 넘보며 그 무슨 《연화》를 울려나온다 세계가 보라, 조선의 후대들은 혁명의 불꽃기를 높이 날리며 사회주의 승리의 한걸음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지 않는다.

조선혁명의 전 포경지에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란 후대들이 위대한 장군님시대의 주체군이 되고 장군님 키워주시 후대들이 오늘날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혁명의 전진을 추동해나가는 금지없는 력사라는 생각에 가슴속으로 감동할수 있다.

후대이자 미래의 인민이고 미래의 조국이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당들도 있지만 시대와 단계를 이어가며 이렇듯 후대들을 훌륭하게 육성함으로써 위대한 인민의 력사를 활기차게 써온 당과 국가가 없다.

올리는 력사의 오늘의 세대에 대한 자부도 크다. 그런 위대한 세할, 훌륭한 대대가 우리뒤로 또 또 오면, 그렇게 무한대로 이어 지시니 미래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라야말로 진짜강국이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는 《애국가》와 같은 노래가 없다.

《세상에 부럼없어라》

하늘은 푸르고 대 마름 즐겁다 손뼉금소리 울려라... 마시도 그 노래 모르면 조선의 꽃봉우리 가년듯, 이는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의 주제인 동시에 귀중한 어머니에 대한 송가이다.

아버지!

심마를 정향명이라도 아이들에게 풀어보아도 좋고 진성이포에 원아들에게 풀어보아도 좋다.

너희들의 아버지라 누구인가, 그러면 약속이나 한듯이 되지는 데다-우리의 아버지인 정향하는 김정일원수님이시구나!

위대한 수령이 훌륭한 후대를 키운다.

우리 조국에정향한 한 나라 수령이 온 나라 어린이들의 아버지, 자식부자가 되어서 그 들모든 강국건설의 믿음직한 강군들로서 키워가는 강동같은 화북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아이들은 나라의 왕, 수령은 그 아이들의 아버지!

물어보면 이 땅에서 위대한 아버지사랑의 세계, 후대사랑의 세 력사를 펼치신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시었다.

조선혁명의 첫 기수에 서있던 진명학교가 떠오른다. 그것이 우리 혁명의 전로를 밝힌 역사적인 커튼살의 정조산이었다.

동지 사립학원사랑이 친모보다 귀중했던 그때 바로 그 학교의 교원으로 혁명조직성원들을 파견하여주시었다 진명학교는 그 때로 우리 수령님께서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시며 미래를 조종해 가꾸어주시는 후대사랑의 요람과 같았다.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입시적후퇴시기에 있었던 어린애들을 《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잊을수 없다.

혹적이 잃어버린 3살 난 단 함양의 어린이들을 위해 지구에 파견되었던 위대한 수령님의 호위성원들.

그 어린이들 아버지마저도 수령님걸을 떠날수 없다고 하였을 때 우리 수령님 절절히 하신 교시,

우리가 지금 피를리며 싸우는것은 미래

를 위하고 그들을 위해서가 아닌가. 정명 친부모의 사랑이 가닿지 못하는 곳에 더 먼저 가닿는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수령님의 사랑이었고 우리 수령님께서 자신보다 더 귀중한 여기진 존재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다.

지금도 귀 기울이면 들려올것만 같다. 어느 한 회의장에서 뜨겁게 울린 우리 수령님의 울음.

고아가 되어 애육원과 초등학교에서 자란 사람들의 심봉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들이 자라난 환경과 또래는 방화국의 사회주의제도이며 그들을 키워온 아버지와 어머니는 조선로동당이다.

환경과 또래는 사회주의제도, 키워온 아버지와 어머니는 조선로동당!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똑같이 울었다.

지금도 온 나라 가정들에서 그리움속에 부르는 노래 《나랑과 아이들》, 정명 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미래를 없애려고 피를 흘려 남기고 그대 우리 장군님 어이하러 떠났고 이 길을 가고자하는 노래를 무르시며 선군길을 이어가시었다.

친안사실들의 운명을 지키시려는 위대한 아버지의 마음에서였다.

귀전에 들려올것만 같다.

이들의 첫말이후를 그려보시며 전진길로 향하시던 그날의 아열소울라의 발동소리가, 그리고 떠오른다. 문과기들에게 안겨주시던 만년필에 쓴 뜻 담이 새겨진 《미려한 사랑하리》의 글방이며 정경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특정다수 대승단의 흥안이 가여웠게 자라 오를은 끝없는 너벙사가 된 모습.

세월은 총리 혁명의 대는 벌레 4세, 5세를 기록하고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안겨사는 아버지의 품은 바뀌지 않았으니 우리 원수님께서 대를 이어 이 땅에서 세가시는 후대사랑의 시시하는 그 얼마나 뜨거웠었인가.

우리 후대들이 더불어 이어 누리는 아버지목! 인류목사가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행운의 의미는 참으로 깊다.

그것은 이 땅의 후대들이 태고 이어 올림에 대한 가장 큰 믿음은 안고 역대로 씩씩하게 성장한다는것이며 품어주고 보살펴 주는 따스로운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민이 심장으로 타치는 《귀여운 아이들》이 겪을 줄이 아버지라게서 전진한다는 노래의 구절처럼 이 세상 제일 강하고 자애로우신 위대한 아버지를 모시어 이 땅의 미래는 끄떡없다는 드림같은 확신이며 자부이다.

사말들은 말한다.

우리 원수님은 정말 아이들을 괴워하신다고, 어쩌면 아이들과 그렇게도 화를없이 어울리며 피아노의 《전향》까지 받으신지, 어쩌면 최후원전마음의 아기의 첫들까지 잊지 않으셨고 생일선물을 안고 가실까, 빨간말을 제일 좋아하는 동심을 어떻게 다 아시고 좋은 일을 찾아한 중추에게가 팔간별 다섯개를 그려 주시는것이 고장자는 아기의 표반을 찢음 어머니부터 잘 지고라 하고 그러도 다짐하게 속삭이신가, 아이들을 괴워하신것은 우리 원수님의 친정들이고, 어떻게든 이 땅에서 살아남아는 진정의 불순이라고.

그 친정, 그 인간미에 또 하나의 위대한 후대사랑의 세계가 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다.

우리가 지금과 같이 어렵고 난만한 시기에 굳건히 지켜낸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내 후대에 가서 사회주의승리의 함성으로 높이 울려 퍼질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원수의 신념과 확언에 넘쳐 조국의 만년미래를 펼쳐가시는 위인께서만 후대사랑의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셨을 것이다.

나를 이제서서 아이들은 애원한 똑같은 어머니이다. 더 높은 추추초음 미미의 우리 조선-원화적일학원의 모우이고 한결 귀중살았어 리트리는 꽃봉우리들의 웃음소리가 자 부강조국의 하늘기에 울려 퍼질 장엄한 최후승리의 함성이다.

생각할수록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후대사랑의 뜨거운 손길로 오늘의 우리

은 나라 원안인민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의 자우자우를 심장으로 따르며 이 땅에서 우리 아이들의 웃음을 더 활짝 꽃피우기.

후대들을 위하여!

이는 존엄성은 우리 당기의 기록에 새겨진 성스러운 사명이고 이 땅에 조선인민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불고나아가 할 무정의 표대이다.

후대들을 위하여 투쟁하는 여기에 조선혁명의 가치를 있고 우리 조국의 영원불멸성이 있으며 시대의 아름다움이 있다.

후대들을 위하여 더 많은 맘을 흘리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녀야 할 과우이며 겹겹을 심장에 불타야 할 성스러운 자각이다.

우리의 백두산성새가 억척으로 다져질 때 내 조국의 미래가 든든하고 이 땅의 어린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기쁨의 노래소리가 시대의 승리가 되어 더욱 뜨겁게 울려 넘치게 된다.

주체적국방공업부문의 전문원들이여, 내 조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선군혁명의 병기장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자.

전화의 불빛속에서 변소으로 피대를 들며 원수님의 피관을 억척같이 꺾던 불사신들이 자신들이 조여대었던 허허머를 유산으로 남겨주며 무엇을 바랐었나.

산으로 넘어가다 다시금 이 땅을 넘겨다보지 못해, 더러운 군화발을 붙여놓았던 양기의 후손들이 또다시 덤벼들면 세도 없이 자랑스러울수 있도록 백두산성새를 순간도 멈출없이 버리고 또 버리며야 한다는 믿음이 아니었겠나.

그대가 주체적국방공업부문의 전문원이라 어떤 이 땅의 어린이들이 고은 눈망울을 내 조국의 맑고 푸른 하늘을 새기고 무무는 꿈과 리상을 활짝 꽃피우기도록 천부들을 전 붙게 하는 백두산성새를 더 많이, 더 광범 개발생신하라.

자력자강만이 우리가 살길이고 후대가 부흥하는 길이다.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다. 우리 후대들은 내적것을 넘겨다보지 않는 자주적의 강한 존엄성은 배일의 인민이 되게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재부를 더 많이, 더 훌륭히 마련해가자.

오늘이 어렵고 우리가 잠시라도 헛눈을 팔면 나라의 도를 부러뜨린 그것은 손지키지않고 아닌 후대들을 제국주의자들의 노예로 내맡기는 자멸행위나 같다. 자력자강의 창조력으로 후대들에게 세계인 우리들의 것을 한가자라도 더 안겨주기 위해 힘과 기쁨과 열정을 다 마시자.

누구나 과학기술혁명전에 참가하러 뛰어오면 우리에 유를 창조하여야 한다. 유에서 비단같은 울리며 뽀송, 세제적인 운동복자, 잠복자로 명성명천 계승상과 같은 기적적발명의 주인공이 되어 우리의 후대들에게 친화적일학원을 넘겨주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삶의 순간순간에 어떻게 맞이하는가에 따라 조국의 오늘이 빛나고 매일이 결정된다.

이 나라의 찬란한 미래를 피로써 열어놓은 우리 조국부마우의 선원들의 마음까지 합쳐, 보이지 않는 싸움의 길에서 생을 마친 유망무명의 영웅들만이 무고하지 않게 값 높은 삶의 자욱을 새겨주었다.

오늘의 우리 후대후마우 후대들이 되어 갈 길의 디딤돌이 되고 도약대가 되어 자신의 피와 맘이 스민 창조물로 조국의 데 지어 사직원을 쓰자.

내 후대들은 뜨겁게 추어왔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같은 시련이 있을 때라도 우리들의 행복을 배워들이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안고 창조의 진군로 달려나간 사람들이었다...

우주를 나는 위성들과 군사강국의 위용을 과시하는 《주체관》, 수많은 문명의 전축물들과 황금신, 황금질, 황금복을 대 한 거에서 우리 세대의 무정의 끝줄을 읽게 되리라.

다 밝게 웃어라, 내 조국의 어린이들아, 다라리라, 후대들을 위하여!

박 옥 정, 엄 금 명

은 나라 원안인민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의 자우자우를 심장으로 따르며 이 땅에서 우리 아이들의 웃음을 더 활짝 꽃피우기.

후대들을 위하여!

이는 존엄성은 우리 당기의 기록에 새겨진 성스러운 사명이고 이 땅에 조선인민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불고나아가 할 무정의 표대이다.

후대들을 위하여 투쟁하는 여기에 조선혁명의 가치를 있고 우리 조국의 영원불멸성이 있으며 시대의 아름다움이 있다.

후대들을 위하여 더 많은 맘을 흘리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녀야 할 과우이며 겹겹을 심장에 불타야 할 성스러운 자각이다.

우리의 백두산성새가 억척으로 다져질 때 내 조국의 미래가 든든하고 이 땅의 어린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기쁨의 노래소리가 시대의 승리가 되어 더욱 뜨겁게 울려 넘치게 된다.

주체적국방공업부문의 전문원들이여, 내 조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선군혁명의 병기장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자.

전화의 불빛속에서 변소으로 피대를 들며 원수님의 피관을 억척같이 꺾던 불사신들이 자신들이 조여대었던 허허머를 유산으로 남겨주며 무엇을 바랐었나.

산으로 넘어가다 다시금 이 땅을 넘겨다보지 못해, 더러운 군화발을 붙여놓았던 양기의 후손들이 또다시 덤벼들면 세도 없이 자랑스러울수 있도록 백두산성새를 순간도 멈출없이 버리고 또 버리며야 한다는 믿음이 아니었겠나.

그대가 주체적국방공업부문의 전문원이라 어떤 이 땅의 어린이들이 고은 눈망울을 내 조국의 맑고 푸른 하늘을 새기고 무무는 꿈과 리상을 활짝 꽃피우기도록 천부들을 전 붙게 하는 백두산성새를 더 많이, 더 광범 개발생신하라.

자력자강만이 우리가 살길이고 후대가 부흥하는 길이다.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다. 우리 후대들은 내적것을 넘겨다보지 않는 자주적의 강한 존엄성은 배일의 인민이 되게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재부를 더 많이, 더 훌륭히 마련해가자.

오늘이 어렵고 우리가 잠시라도 헛눈을 팔면 나라의 도를 부러뜨린 그것은 손지키지않고 아닌 후대들을 제국주의자들의 노예로 내맡기는 자멸행위나 같다. 자력자강의 창조력으로 후대들에게 세계인 우리들의 것을 한가자라도 더 안겨주기 위해 힘과 기쁨과 열정을 다 마시자.

누구나 과학기술혁명전에 참가하러 뛰어오면 우리에 유를 창조하여야 한다. 유에서 비단같은 울리며 뽀송, 세제적인 운동복자, 잠복자로 명성명천 계승상과 같은 기적적발명의 주인공이 되어 우리의 후대들에게 친화적일학원을 넘겨주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삶의 순간순간에 어떻게 맞이하는가에 따라 조국의 오늘이 빛나고 매일이 결정된다.

이 나라의 찬란한 미래를 피로써 열어놓은 우리 조국부마우의 선원들의 마음까지 합쳐, 보이지 않는 싸움의 길에서 생을 마친 유망무명의 영웅들만이 무고하지 않게 값 높은 삶의 자욱을 새겨주었다.

오늘의 우리 후대후마우 후대들이 되어 갈 길의 디딤돌이 되고 도약대가 되어 자신의 피와 맘이 스민 창조물로 조국의 데 지어 사직원을 쓰자.

내 후대들은 뜨겁게 추어왔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같은 시련이 있을 때라도 우리들의 행복을 배워들이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안고 창조의 진군로 달려나간 사람들이었다...

우주를 나는 위성들과 군사강국의 위용을 과시하는 《주체관》, 수많은 문명의 전축물들과 황금신, 황금질, 황금복을 대 한 거에서 우리 세대의 무정의 끝줄을 읽게 되리라.

다 밝게 웃어라, 내 조국의 어린이들아, 다라리라, 후대들을 위하여!

박 옥 정, 엄 금 명

우리의 사상과 신념, 권위와 미례를 굳건히 수호할 위대한 《주체관》, 새로운 투쟁적 계급발전의 투쟁적 통찰력으로 밀려드는 불구름을 저지할 채찍과 영리한 승리의 화환의 하얀을 펼쳐놓은 민족사적대승사에 맞이하는 아이들의 6월명절이다.

우리 어린이들 얼마나 기쁘게 크리시, 이 나라 어머니들의 눈가에 또 뜨거워지고 고여오른다.

전설과 시편을 불리던 땅에 꽃피던 피어나는 우리 아이들의 웃음!

누가 승리자와도 배반자가, 누가 인간이며 누가 이수인가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있다.

우리 노래하노라, 명명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선물로, 복받은 이 대지를 오선지향의 사회주의조선의 위대한 찬란한 미래를, 장래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아이들의 밝고 명랑한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해나아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음입니다.》

아이들이 웃는다! 그것은 창으로 힘이 솟는다, 하나의 위대한 세계가 보이는 법이다. 그 나라의 강대함과 무궁한 앞날을 가능하게 하는 아이들의 웃음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따뜻한 정이 넘치고 언제나 이기는 나라, 미래가 밝고 희망이 무궁한 나라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있다. 언덕의 세부모다, 거대한 평토보다, 력보다 더 값지고 강건한 것은 바로 명랑하고 구슬같은 아이들의 깨끗한 웃음이다.

세계, 사회주의 이 조선의 참모습을 보며, 저행동원전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보라. 이집해된 솟아오르던 달달달달 《소나무》 책이배에 1 2년새꽃대 물고 돌리었다. 민물배학살장 번지는가 수업시간엔 아이들의 시간이라, 우선권을 받으니 달려오는 사랑의 왕자와 더불어 수도 평양과 원산 등 나라의 곳곳에서는 아이들의 풍우유머는 시간이 넘쳐나고 이어진다.

지금도 낱대 평정한 목소리-《사회주의가 꽃 활짝열린다.》

원아들의 굳건히 울려나오는 이 진정의 도로, 육류동맹원의 의사결정자들이 귀엽게 웃는 애원기 가슴속에 찡찡한 대는 정경진경진경의 넓은 그대도 복속에서 복속 누리는 이 나라 어린이들의 행복을 노래한다.

남아준 부모는 결을 떠났어도 우리 원아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어머니가 있는가. 잔재취주는 엄마, 밭벼어주는 엄마, 웃웃다머주는 엄마, 아흔새끼도 보살펴주는 엄마, 여기에 피아노며 가야금을 배워주는 선생님과 있어 그 따뜻한 손길이 이끌어 왔던 것은 손가락을 펴기하는 모습들도 우리 영도복 보았었다.

부모 아이들의 하루는 과연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이 땅에서 제일 맛있는 집밥은 다 아이들의 밥, 만장대과 송도전, 풍천 뽕명주사리들에 눈부시게 솟아오른 아열소들에서도 학생소년들의 웃음소리 그칠 줄 모른다.

자란 세대가 위대한 수령님을 당대 주체혁명의 전성기를 열어나갔고 행한할수 없는 시련이 겹쳐들던 고난의 행군을 영웅적으로 돌파한 승리자로 력사의 언덕에 높이 올라갔다.

오늘 저 만리대공에 《주체관》의 피성을 장쾌하게 울린 우리의 미려운 국방과외전사들속에 과연 누구들이 있는가.

고난의 행군의 날에 성장한 세대들이다. 고집속에 철이 들며 원수에 대한 증오를 피와 살로 새긴 그들이 가증스러운 미제에게 최후의 명령을 선언하였다. 그명령 미명도 우리의 세 세대가 2개의 철도철을 띠고 불태우려 제육장군으로 내달리는 주체조선의 위용을 온 누리에 떨치고 백두산뜨락에서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여 청년장군의 기상을 만방에 시위하였다.

이 땅에서 지리란 후대들은 이렇게 강하고 훌륭하다.

미제가 우리 혁명의 3세, 4세를 넘보며 그 무슨 《연화》를 울려나온다 세계가 보라, 조선의 후대들은 혁명의 불꽃기를 높이 날리며 사회주의 승리의 한걸음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지 않는다.

조선혁명의 전 포경지에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란 후대들이 위대한 장군님시대의 주체군이 되고 장군님 키워주시 후대들이 오늘날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혁명의 전진을 추동해나가는 금지없는 력사라는 생각에 가슴속으로 감동할수 있다.

후대이자 미래의 인민이고 미래의 조국이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당들도 있지만 시대와 단계를 이어가며 이렇듯 후대들을 훌륭하게 육성함으로써 위대한 인민의 력사를 활기차게 써온 당과 국가가 없다.

올리는 력사의 오늘의 세대에 대한 자부도 크다. 그런 위대한 세할, 훌륭한 대대가 우리뒤로 또 또 오면, 그렇게 무한대로 이어 지시니 미래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라야말로 진짜강국이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는 《애국가》와 같은 노래가 없다.

《세상에 부럼없어라》

하늘은 푸르고 대 마름 즐겁다 손뼉금소리 울려라... 마시도 그 노래 모르면 조선의 꽃봉우리 가년듯, 이는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의 주제인 동시에 귀중한 어머니에 대한 송가이다.

아버지!

심마를 정향명이라도 아이들에게 풀어보아도 좋고 진성이포에 원아들에게 풀어보아도 좋다.

너희들의 아버지라 누구인가, 그러면 약속이나 한듯이 되지는 데다-우리의 아버지인 정향하는 김정일원수님이시구나!

위대한 수령이 훌륭한 후대를 키운다.

우리 조국에정향한 한 나라 수령이 온 나라 어린이들의 아버지, 자식부자가 되어서 그 들모든 강국건설의 믿음직한 강군들로서 키워가는 강동같은 화북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아이들은 나라의 왕, 수령은 그 아이들의 아버지!

물어보면 이 땅에서 위대한 아버지사랑의 세계, 후대사랑의 세 력사를 펼치신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시었다.

조선혁명의 첫 기수에 서있던 진명학교가 떠오른다. 그것이 우리 혁명의 전로를 밝힌 역사적인 커튼살의 정조산이었다.

동지 사립학원사랑이 친모보다 귀중했던 그때 바로 그 학교의 교원으로 혁명조직성원들을 파견하여주시었다 진명학교는 그 때로 우리 수령님께서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시며 미래를 조종해 가꾸어주시는 후대사랑의 요람과 같았다.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입시적후퇴시기에 있었던 어린애들을 《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잊을수 없다.

혹적이 잃어버린 3살 난 단 함양의 어린이들을 위해 지구에 파견되었던 위대한 수령님의 호위성원들.

그 어린이들 아버지마저도 수령님걸을 떠날수 없다고 하였을 때 우리 수령님 절절히 하신 교시,

우리가 지금 피를리며 싸우는것은 미래

를 위하고 그들을 위해서가 아닌가. 정명 친부모의 사랑이 가닿지 못하는 곳에 더 먼저 가닿는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수령님의 사랑이었고 우리 수령님께서 자신보다 더 귀중한 여기진 존재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다.

지금도 귀 기울이면 들려올것만 같다. 어느 한 회의장에서 뜨겁게 울린 우리 수령님의 울음.

고아가 되어 애육원과 초등학교에서 자란 사람들의 심봉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들이 자라난 환경과 또래는 방화국의 사회주의제도이며 그들을 키워온 아버지와 어머니는 조선로동당이다.

환경과 또래는 사회주의제도, 키워온 아버지와 어머니는 조선로동당!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똑같이 울었다.

지금도 온 나라 가정들에서 그리움속에 부르는 노래 《나랑과 아이들》, 정명 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미래를 없애려고 피를 흘려 남기고 그대 우리 장군님 어이하러 떠났고 이 길을 가고자하는 노래를 무르시며 선군길을 이어가시었다.

친안사실들의 운명을 지키시려는 위대한 아버지의 마음에서였다.

귀전에 들려올것만 같다.

이들의 첫말이후를 그려보시며 전진길로 향하시던 그날의 아열소울라의 발동소리가, 그리고 떠오른다. 문과기들에게 안겨주시던 만년필에 쓴 뜻 담이 새겨진 《미려한 사랑하리》의 글방이며 정경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특정다수 대승단의 흥안이 가여웠게 자라 오를은 끝없는 너



# 보천보전투승리 80돐을 맞으며 우표 발행



보천보전투를 지원하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국가우표발행국에서 보천보전투승리 80돐을 맞으며 새 우표(소형전지 1종)를 창작하여 내놓았다.

붉은 기록을 형상한 소형전지에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신용하던 우리 민족에게 재생의 희망을 안겨 주고 온 겨레를 조국해방전쟁으로 불러일으키시기 위하여 평활투쟁한

군사적지략과 전법으로 몹스 보천보 전투를 빛나는 승리로 조직지휘하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엄하신 영상이 오려져있다.

우리 인민들에게 조선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일본제국주의의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새

겨준 보천보의 불길과 원수의 아성을 향해 전격해나가는 항일유격대원들의 모습도 우표에 반영되어있다.

소형전지의 뒷부분에는 《보천보전투승리 80돐》, 《주제 26(1937)~주제 106(2017)》이라는 글씨가 새겨져있다.

【조선중앙통신】

# (시) 영 원 한 불 길

보천보의 밤하늘에 지춌어  
삼천리를 밝힌 6월의 불길이어  
해와 달을 끌어  
세기와 세월을 넘어  
너 몇몇해를 마음왔느냐

장장 80년  
그 불길 영원한 이 하늘아래  
조국은  
그 얼마나 강대했었느냐

충천하는 화광속에  
두발을 적시는 뜨거운 환희로  
백두산 강대장을 우리르던  
그날의 인민이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존엄스러운  
영웅인민으로 자라났다

피흘리며 짓밟히며  
빛을 잃었던 조선이  
진실의 세월들을 휘감고  
불계의 국력을 떨치는  
강국으로 솟아올랐다

울려오느냐  
주체관의 불피성 리저오르는  
저 하늘가게  
노오란 백두산노랑이의 마음소리  
- 풍포블이어!

아시안의 《제왕》이라 쓰시더  
말적의 불길기 담편지를 들부시던  
그날의 그 거리 보천보  
일제불 매망의 내리막길로 차던전  
승전의 거리를 내 오늘 걷는다

결을수룩 통쾌하구나  
신승기를 펼쳐신의 불벼락에  
순당으로 되어버린  
면사무소, 소방화관...  
죽임의 소굴들이 쫓겨나고  
아시아의 《제왕》이라 쓰시더

# (시) 위대한 강국의 경의

백두의 하늘아래 태어나  
보천보의 승전신화를  
세상의 바람이 삼천리에 밟았던  
역사의 땅 보천보  
항일의 옛 전장에  
거언히 서신 백두산 강대장

백두의 피성을 리저  
강도 일제의 멸망을 선포하던  
8월의 그날처럼  
혈전의 초연스민 그이의 군복자락은  
기발처럼 나뭇가지

손길 높이 드시어  
은세게 떠날스민 백두의 푸른 하  
늘에  
《희생》과 《복쿠성》의 비행운 눈부  
시다

80년전 그날처럼 승전의 환희가  
경도의 불꽃결되어  
그이 서계시는 대를아래 끌어간다

끝없는 행복으로 우리르노라  
끝없는 영광으로 우리르노라  
실한공과 피바다를 헤쳐넘어  
이 조선 구원하신분  
무궁초선의 천만년을 열어놓으신  
민족의 은인 김일성장군!

불세출의 영웅  
그이 만고의 항쟁사를 불어안고  
군장력 푸른 산밭이 화와 슬퍼  
린다  
성스민 민족의 역사속에  
영광스러운 강국의 세월을 실고

노래처럼 들으며 지낸 우리  
원수들에게 광대만을 안기며  
인제나 이기기만 하는 승리의  
전봉을  
혈통으로 이어가는  
지대한 백두산의 후손들

오, 나는 희열에 넘쳐  
보천보거리를 걷는다  
제국주의의 마지막숨통이 끊어진  
침략의 아성들을  
걸음걸음 밟으며 눌러드이며  
승전의 이 거리를 걷는다

격정의 불모와 날리며 가원친은  
사물된다  
미래에도 미래에도 끌어쳐흐른다  
그날의 보천보의 총성을  
주체관의 피성으로 울리며  
제국주의의아성을 밀부리쳐 푸른  
드는

천승명장 김정은장군  
그이는 오늘도 백두산 강대장!

백전백승의 백두산세월이 흐르는  
이 땅이 하늘에 메아리치는  
장대한 승리의 피성  
그것은  
우리 수령님께 드리는  
희대의 경의, 희대의 영광

보천보의 총성너머  
백두의 새 아침이 밝아왔듯이  
김정은장군 이 땅위에 높이 울려  
가시는  
주체관의 폭음으로  
기어오 오고야말리라  
최후승리의 그 아침은  
오, 영원한 승리의 불길 라오르  
는  
세월의 끝까지  
강국의 무궁무진한  
보천보, 역사의 땅에  
백두산 강대장 거언히 서계신다

# 력사가 남긴 기록들

보천보혁명박물관에는 당시 《동아일보》 특진기자가 보천보전투가 있는 다음날에 찍은 사진을 일본 신문 《오사카 아사히신문》 6월 10일호 4면에 대한 자료가 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승리에 제대미로 면한 보천보시가지를 돌아본 《동아일보》 기사는 《대동일과우의 보천보, 보천면사무소, 우편소, 산림보호구, 소방화관, 이런 주요한 건물들이 하루밤 사이에 재가 되었다.》라고 했다.

당시 순사였던 한 일본인은 《보천보는 지난날 중요한 지점이라고 해

서 압록강변에는 콩크리트와 벽돌로 모두를 쌓았다. 방어선은 공상철벽이었다. 그런것만큼 보천보가 김일성부대의 습격을 받으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회상하였다.

보천보에서 적들이 녹아난데 대하여 《동아일보》는 《김일성부대로 반명, 함남경찰부에서 출동》, 《조선일보》는 《여왕의 보천사, 피난자 출속상대》, 《공군대부대 월경승배, 주체소용 환승시에 총화》라고 보도하였다.

일제의 한 비밀문건에는 《...해상경

찰서 제 1선은 일축축박의 위기를 내포하여 우리를 경비원은 마치 적의 포아기마에 드러내놓여있는것과 같은 상태이다. 바야흐로 사나운 별과 같이 남해는 공기와 맞서 과연 미국 정을 지지낼수 있었는가 걱정스러울 바가 있는것이다.》라고 썼다.

미국에서 발행되고있던 신문 《신한민보》는 보천보전투소식을 상세히 보도하였는데 특별환자로 된 그 제목은 《보천보전투는 별같이 불같이 날고있어 활동》이었다.

특파기자

# (시) 나는 보천보거리를 걷는다

총알치고 거물대던 사무라이족  
속물  
넘볼처럼 위두던 《상해일승》, 《월백수비》  
어디로 갔나  
얼음이 죽 버져 넌발로 들고되다  
총알구멍 송송한 지 경향관주세소담  
백전백승  
한순간에 만신창이 되었구나  
와하하-  
항일백두산의 서리발총검에

# 조국해방성전의 거세찬 불길로 라오르 보천보의 해불

보천보전투승리이후 항일무장투쟁 국내에도 급속히 확대, 26개 비밀근거지, 60여개 임시비밀근거지 창설, 120여개 무장봉기조직 결성

위대한 당의 명도마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필승불패성을 단방에 파시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권민총동적전으로 돌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8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제침략자들에게 실대한 타격을 주고 우리 인민에게 조국해방의 사명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조직지휘하신 보천보전투의 빛나는 승리는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민족생명의 희망과 민족자주의 힘으로 조국을 만드시게끔 할수 있다는 확신을 안겨주며 온 겨레를 거룩적인 반일항쟁으로 불러일으킨 투기할 사인이었다.

보천보에서 라오르 해불은 삼시에 전민항쟁의 불길로 라오르 온 민족이 일제와의 전면대결전에 용감 떨쳐나섰으며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은 새로운 양상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도마라 항일무장투쟁은 국내에도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각지에 26개의 비밀근거지와 60여개의 임시비밀근거지들이 꾸러지고 120여개의 무장봉기조직들이 결성되어 강력한 주체혁명위업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수 있게 되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보천보의 해불을 전민항쟁의 거세찬 불길로 라오르 온 민족이 일제와의 전면대결전에 용감 떨쳐나섰으며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은 새로운 양상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도마라 항일무장투쟁은 국내에도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각지에 26개의 비밀근거지와 60여개의 임시비밀근거지들이 꾸러지고 120여개의 무장봉기조직들이 결성되어 강력한 주체혁명위업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수 있게 되었다.

세계가 되고있었다. 주체소는 가변하게도 빛의 동지같이 되고 연사무는 아직 언기가 돌을 놓고 기동과 돌보가 판 시키면 솟듯이 앙상하게 남았으며 분사머미도 모두 라서 바람에 제만 날고있었다.》고 썼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보천보전투후 대대로 황급히 뒤따오는 적들을 명활무쌍한 전법으로 쳐부신과 간상공에서 편이여 통쾌하게 죽여버리시며 소련군에게도 약탈해서 김일성장군께서 소련군도하신 보천보전투는 대륙침략의 야망에 들었던 일본제국의 몰종이러를 만신창으로 만든것이다 《내선일제》와 《중공공작》을 소련군에게 끌어대던 일본제국의 허바닥에 맞장을 떨어놓은 커다란 사건이었다.》고 고백하였다.

단행선 무산지우후는 보천보전투와 함께 원수들에게는 철추를 내리고 우리 인민들에게는 또다시 조국해방의 사명을 안겨주었다.

순발보도물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전투소식을 크게 소개하며 찬양하였다.

1938년 1월 15일부 《동아일보》에 의하면 1937년 한해 조선인민혁명군의 입출강대안정출수는 1, 025차례에 《하루정예 약 3차례》이고 총인원수는 3만여명에 달하였으니 이는 《1년간(1937년) 국경의 특이한 광경》이라고 한다.

이전 소련의 출판물들도 1937년-1939년기간에만 하여도 조선인민혁명군은 일제침략자들의 3, 900만여명의 대소전투를 벌였으며 국내에서 활동을 적극화하고있을 뿐 아니라 자기들의 활동구역을 확대해나갔다고 진술했다.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위풍당당의 국내에 진출하여 일제침략자들을 폭신 격동적인 소시들에서 우리 인민(하루정예 약 3차례)에 그 총인원수는 3만여명에 달하였으니 이는 《1년간(1937년) 국경의 특이한 광경》이라고 한다.

평양, 함흥, 원산, 한성(서울), 대구, 부산, 진주 등 도처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승공에 항해한 인민들의 대중적인 반일투쟁도 벌어졌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드세한 공작과 인민들의 적극적인 반일항쟁에 의하여 적들의 지령정들은 어지없이 격파되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조선인민혁명군을 핵심으로 한 주체혁명위업이 있었기에 조선인민은 일제를 쳐부리고 공민에도 바라던 조국해방의 남을 맞이하게 되었다.

위대한 당의 명도마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필승불패성을 단방에 파시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권민총동적전으로 돌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8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제침략자들에게 실대한 타격을 주고 우리 인민에게 조국해방의 사명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조직지휘하신 보천보전투의 빛나는 승리는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민족생명의 희망과 민족자주의 힘으로 조국을 만드시게끔 할수 있다는 확신을 안겨주며 온 겨레를 거룩적인 반일항쟁으로 불러일으킨 투기할 사인이었다.

보천보에서 라오르 해불은 삼시에 전민항쟁의 불길로 라오르 온 민족이 일제와의 전면대결전에 용감 떨쳐나섰으며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은 새로운 양상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도마라 항일무장투쟁은 국내에도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각지에 26개의 비밀근거지와 60여개의 임시비밀근거지들이 꾸러지고 120여개의 무장봉기조직들이 결성되어 강력한 주체혁명위업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수 있게 되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보천보의 해불을 전민항쟁의 거세찬 불길로 라오르 온 민족이 일제와의 전면대결전에 용감 떨쳐나섰으며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은 새로운 양상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도마라 항일무장투쟁은 국내에도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각지에 26개의 비밀근거지와 60여개의 임시비밀근거지들이 꾸러지고 120여개의 무장봉기조직들이 결성되어 강력한 주체혁명위업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수 있게 되었다.

세계가 되고있었다. 주체소는 가변하게도 빛의 동지같이 되고 연사무는 아직 언기가 돌을 놓고 기동과 돌보가 판 시키면 솟듯이 앙상하게 남았으며 분사머미도 모두 라서 바람에 제만 날고있었다.》고 썼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보천보전투후 대대로 황급히 뒤따오는 적들을 명활무쌍한 전법으로 쳐부신과 간상공에서 편이여 통쾌하게 죽여버리시며 소련군에게도 약탈해서 김일성장군께서 소련군도하신 보천보전투는 대륙침략의 야망에 들었던 일본제국의 몰종이러를 만신창으로 만든것이다 《내선일제》와 《중공공작》을 소련군에게 끌어대던 일본제국의 허바닥에 맞장을 떨어놓은 커다란 사건이었다.》고 고백하였다.

단행선 무산지우후는 보천보전투와 함께 원수들에게는 철추를 내리고 우리 인민들에게는 또다시 조국해방의 사명을 안겨주었다.

순발보도물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전투소식을 크게 소개하며 찬양하였다.

1938년 1월 15일부 《동아일보》에 의하면 1937년 한해 조선인민혁명군의 입출강대안정출수는 1, 025차례에 《하루정예 약 3차례》이고 총인원수는 3만여명에 달하였으니 이는 《1년간(1937년) 국경의 특이한 광경》이라고 한다.

이전 소련의 출판물들도 1937년-1939년기간에만 하여도 조선인민혁명군은 일제침략자들의 3, 900만여명의 대소전투를 벌였으며 국내에서 활동을 적극화하고있을 뿐 아니라 자기들의 활동구역을 확대해나갔다고 진술했다.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위풍당당의 국내에 진출하여 일제침략자들을 폭신 격동적인 소시들에서 우리 인민(하루정예 약 3차례)에 그 총인원수는 3만여명에 달하였으니 이는 《1년간(1937년) 국경의 특이한 광경》이라고 한다.

평양, 함흥, 원산, 한성(서울), 대구, 부산, 진주 등 도처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승공에 항해한 인민들의 대중적인 반일투쟁도 벌어졌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드세한 공작과 인민들의 적극적인 반일항쟁에 의하여 적들의 지령정들은 어지없이 격파되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조선인민혁명군을 핵심으로 한 주체혁명위업이 있었기에 조선인민은 일제를 쳐부리고 공민에도 바라던 조국해방의 남을 맞이하게 되었다.

# 래양의 력사는 위대한 계승으로 더욱 빛난다

얼마전 우리 나라를 방문한 장개화교도 엘리야 발로리 이방리야 총할부자그후 리사장은 백두산전출승위인들에게 대한 다할없는 호모심을 금지 못해하면서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드로 하였다.

나의 마음속에는 조선의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명동지들의 래양의 모습이 깊이 간직되어있다.

그것은 위인들에서 쌓으신 업적이 함으로 위대하기때문이다.

얼마가 이르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시고 항일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어 력사의 세시대, 주체시대를 열어놓으시었다.

그이께서는 미국의 침략으로 무어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시고 전쟁으로 파괴된 빈미우에 조선식사회주의체도를 일떠세우시어 인민의 영원한 평

복을 담보하는 존엄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었다.

주체적의 혁명전쟁과 복구건설, 무산의 사회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신 김일성주석은 세계가 공인하는 20여개의 대영인이다.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위업은 김정일명동지에 의하여 굳건히 계승되었다.

김정일명동지께서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었다.

특정적인 선군정치를 펼치신 그이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불패의 강군으로 함입하시어 강화발전시키시고 조선을 세계적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었다.

그이의 불멸불욕의 선군명도가 있어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에서 원천전승하고 사회주의건설과 대외관계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수 있었다.

진보적인류는 불세출의 선군명장 김정일명동지께서 쌓으신 거대한 업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래양의 력사는 위대한 계승으로 더욱 찬연히 빛난다.

오늘 조선혁명의 전투에는 또 위대한 천승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명동자 김정은각하께서 계신다. 단민의 존경과 칭송을 받고계시는 그이를 높이 모신것은 조선인민의 가장 큰 행운이다.

모든것을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명동지의 사상과 뜻대로 해나가는 김정은각하의 탁월하고 세련된 명도에 의해 오늘 조선의 존엄과 국력은 만반이 면쳐지고있다.

김정은 각하께서 계시어 절세위인들의 혁명애와 불멸의 업적을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며 조선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으로 솟아오른것이다.

# 전국 청년 학생들의 백두산 지구 혁명전적지다행군대 출발모임 진행

모든 참가자들이 이번 답사행군을 통하여 보천보전투의 빛나는 승리로 민족생명의 희망을 안겨주고 온 겨레를 조국해방전쟁으로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이해하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캄바람정신을 체질화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명장들로 더욱 억세게 준비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

정촌의 기백과 열정을 안고 모든 생활을 항일유격대식으로 진행하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하고 혁명적정지를 높이 발휘함으로써 청년위원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증모를 남겼었다.

이 보여졌기때고 그들은 언

모임이 끝난 다음 답사행군대원들은 공화국기와 청년동맹기발, 답사행군대기발을 대오앞에 휘날리며 력사의 땅 보천보를 향하여 행군을 시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력사적대결전에서 선군시대 청년전위의 영웅적기공과 본래를 남김없이 파시함때 대하여 강조하였다.

로씨야과학원 극동연구소 조선연구센터 상급연구사일행 귀국  
론스판편 아스볼로브 로 선연구센터 상급연구사와  
세야과학원 극동연구소 조 일행이 2일 비행기로 귀국

【조선중앙통신】





# 자주는 북남관계문제해결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

외세의 대결항쟁사태인 박근혜역대당이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권력이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는 남조선각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

외세와 공모하여 통북합살책동에 미쳐남편 박근혜역대당의 당풍으로 말미암아 지금 북남관계는 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해있다. 대화도 없고 협력도 없으며 정치군사적대결은 극한점에 이르렀다. 언제 핵전쟁이 일어질지도 모르는 조전반도의 침에 한 번 전쟁상태는 북남관계개선의 절박성을 더욱 새겨주고있다.

북남관계의 개선은 조전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이다.

북과 남의 불신과 대결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민족이고 어부지리를 얻는것은 외세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과 전도가 걸려있는 북남관계는 융합 신뢰와 협력의 길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렇지만 이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전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통일, 민족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 이제 더이상 북남대결의 역사적 지옥길을 걸어야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서 서있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지금 북남관계는 개선의 계도도 을 띠어놓지 아니해 또다시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하노라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서 서있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것이다.

북남관계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며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길이 활짝 열려야 한다.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면서 자기 민족을 중시하고 민족의 힘에 철저히 의거하는것이다.

시대와 외세의존은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상적독소이며 망국 의 길이다. 자기 민족의 힘과 능력을 보지 못하고 민족허무주의에 빠지면 시대 주의를 하게 되고 외세에 의존하게 된다.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절대로 북남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

북남관계의 개선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거나 하는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다. 외세는 북남관계가 개선되어 조전반도에서 군사적긴장상태가 해소되고 통일된 강국이 일떠서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외세가 우리 민족을 이용하되 북남관계는 융합 신뢰와 협력의 길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렇지만 이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전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통일, 민족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 이제 더이상 북남대결의 역사적 지옥길을 걸어야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서 서있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것이다.

북남관계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며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길이 활짝 열려야 한다.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면서 자기 민족을 중시하고 민족의 힘에 철저히 의거하는것이다.

시대와 외세의존은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상적독소이며 망국 의 길이다. 자기 민족의 힘과 능력을 보지 못하고 민족허무주의에 빠지면 시대 주의를 하게 되고 외세에 의존하게 된다.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절대로 북남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

북남관계의 개선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거나 하는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다. 외세는 북남관계가 개선되어 조전반도에서 군사적긴장상태가 해소되고 통일된 강국이 일떠서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외세가 우리 민족을 이용하되 북남관계는 융합 신뢰와 협력의 길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렇지만 이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전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통일, 민족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 이제 더이상 북남대결의 역사적 지옥길을 걸어야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서 서있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것이다.

북남관계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며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길이 활짝 열려야 한다.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면서 자기 민족을 중시하고 민족의 힘에 철저히 의거하는것이다.

시대와 외세의존은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상적독소이며 망국 의 길이다. 자기 민족의 힘과 능력을 보지 못하고 민족허무주의에 빠지면 시대 주의를 하게 되고 외세에 의존하게 된다.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절대로 북남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

북남관계의 개선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거나 하는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다. 외세는 북남관계가 개선되어 조전반도에서 군사적긴장상태가 해소되고 통일된 강국이 일떠서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외세가 우리 민족을 이용하되 북남관계는 융합 신뢰와 협력의 길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렇지만 이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전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통일, 민족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 이제 더이상 북남대결의 역사적 지옥길을 걸어야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서 서있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방안이란 어떤 정치인도 민족일체지간 지극히 단호하고 역활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은 외면하고 협한 당파적비판과 통북에 대한 불신과 사로잡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일업무를 우롱하고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 역사의 패잔병들의 고약한 행악질

지금 피로회에서는 새로 등장한 《정권》 요지에 붙어있던 일꾼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있다. 그런데 그것은 인사청문회라기보다 살벌한 통북대결기운이 퍼도는 판판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사유한국당》을 비롯하여 통북대결에 나선 피로회수세당은 그 무슨 《안보환심중》에 대해 윤희하여 청문회장에 나선 후보들에게 《새길론》을세우 마구 몰아넣으며 《국회》인사청문회를 그야말로 스산하게 그지없는 반공과 국대결으로 전락시키고있다.

머릿집 《국무총리》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때 《사유한국당》계리들은 그가 《북인권개선》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었다. 《정안》소진된것의 배후가 북이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수정안》에 찬성했다. 그러나 피로회 수세당은 《북인권》문제에 대한 맹렬한 입장을 밝히라. 《북인권》수정안이 아니라 《북인권》수정안을 삭제하고 조전반도에 국대의 핵전쟁위기를 조성하였으므로 끝내는 제 운명까지 망친 박근혜역대의 전철을 밟는것이냐.

남조선당국은 시대착오적이며 만민족적인 외세의존정책과 절절한 용단을 내리자 하며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북남관계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길에 나서야 한다.

북남관계개선은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이다. 북남관계문제,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원칙에서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려는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며 화교부동한 의의이다.

북과 남이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면서 함께 손잡고 나선다면 외세의 그 어떤 만능일책도 배를 쓸수 없으며 북남관계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전환적국면이 열리게 될것이다.

심철영

이할수 있었던 박근혜《정권》시기의 인사청문회를 그대로 반복해 한다.

피로회수세당의 당풍이 얼마나 변질스럽고 고약스러웠던 남조선 각계 각층을 굽지 못하면서 《남은》지대와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 시대착오적 발목잡기. 《저쪽은 새길론중》 등으로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왔는가.

피로회수세당이 저들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무턱대고 《통북》이니 뭐니 하며 생억지를 부리고 《새길론》소통을 밀어붙여 통북대결에 광분하는것은 이제 더이상 용하지 않는다. 이번에 피로회수세당이 《국회》에서 밀려놓은 광기적인 《안보환심중》을 남조선인민들에게 자신들이 청산해야 할 적폐가 무엇인가 하는것을 더욱 혹독히 뇌리에 새겨주고있다.

피로회수세당은 저들을 파멸로 몰아넣은 인민들의 초분우병도 《통북》이니 뭐니 하며 모욕하였다. 그따위 식으로 살벌한 초분우병을 조성하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무고한 인민들을 억압하는데로 탄압하던 박근혜역대의 적폐는 이제 청산되어야 한다.

초분우병의 승리가 보여주는데와 같이 인민은 친선이며 그것을 거역하는자들은 천벌을 당기아 한다.

이번 기회에 산출상생이 된 보수세당의 눈치를 살피면서 통북대결판동에 맞장구를 치며 뻔뻔하게 놀아대는자들도 혹독히 알아들어야 한다. 주대없이 보수세당의 《통북》이 뭐니 뭐니 팔려다니는것은 초분우병에 대한 모욕으로서 결국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는 어리석은것으로 된다는 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통북대결에 미처나가는자들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피로회수세당이 제아무리 지랄발광해야 소용없고 그것은 저들의 최후통첩의 시간만을 앞당기게 될뿐이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초분우병에 도전하는 박근혜정권을 단호히 쫓아버리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려야 할것이다.

박철준

# 조선민족재생의 서광을 안아온 보천보의 불길 미국은 제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 한다

국 제 사회 계 가 강 조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는 우리 인민의 반제지주정신과 불굴의 기개를 과시하였으며 세계사적인 반제투쟁에 커다란 영향을 준것으로 하여 오늘날 국제사회의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2017년 백두산위인선승태도 스리소공비전투, 스리소공비전투위원회, 스리소공비사상연구소 등은 다음과 같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지금으로부터 80년전에 있는 보천보전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직명도하신 항일투쟁투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보천보전투승리에 토대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은 대부대의 국내진공작전과 일제독재정권 타도를 위한 대대적인 군사적 공격에 돌입하였다. 조선에 대한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의 종말을 예고하고 백방의 평화를 일깨우는 계기로 된 보천보전투의 승리는 세계적반공투쟁의 종주국인 고구려를 되찾고, 강철의 명장으로서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영연한 영향을 드리였다.

볼프비이강제주제사상연구소 등은 볼레비에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보천보전투는 유적전은 곧 산악전이라고 하면 통제의 관념을 깨뜨리고 시가전의 독특한 양상을 과시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통치부대로 일제의 삼엄한 국경경비진을 감쪽같이 돌파하고 김일성주석께서는 적들의 경찰관부대로부터 불과 100m안밖 되는 곳에 지휘부를 집중하고 시가전을 위한 작전을 명중하여 승리하였다.

드디어 밤 10시, 그이제 높이 울려진 신호총성을 따라 유격대원들은 일제적 적통기관들을 습격소탕하고 불을 질렀다.

얼마전 미국은 이른바 한도미싸이 제재압박에 강경히 맞서나가는 이란

미국인들이 유례무고주의정권의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와 이란의 국가안전에 재해를 주는 모략에 가담하였으며 테러지원활동을 벌였다고 폭로하였다.

이러한 정황하에서도 사거리가 긴 한도미싸이들을 개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군사력의 질적강화를 위한 군사운동을 자주 진행해오고있다.

최근에 미행정부는 이란과의 련합에 따른 제재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2015년에 미국을 비롯한 6개국은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데가로 우호적조치를 끌어오기로 이란과 합의하였었다. 제재체제의 만기날지는 올해 5월 18일이었다. 미국무성은 바로 그 전일에 제재체제를 계속하기로 하였다것을 결정하고 국외에 호의하였다 한다.

미국은 저들의 대조선적대정체과 세계적대결정체에서 조전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을 막아와하지 않으면서 항시적인 긴장을 조성하여 해하고 있다. 미국이 그 무슨 《북핵위협》에 대해 고아대며 남조선에 핵확산포함과 핵전쟁위협을 비롯한 핵전략사상들을 계속 우롱하고 핵전쟁위협을 계속 미친듯이 발표하고 있는 사실, 남조선 각계의 민에도 불구하고 《약》제치를 강행하고있는것